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장애인들이 7년만에 승소

금호익스프레스·광주시·정부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 광주지법, 광주 첫 장애인 이동권 소송서 승소 판결 “2026년부터 신규 도입 버스에 15년 동안 설치해야”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시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0일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에게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동안 신규 도입 버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설치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시외버스 중 시외 우등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 시외 우등지행버스, 시외 직행버스, 시외 우등일반버스, 시외 일반버스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 신규 도입 버스 중 5%를 도입하고 → 8%(2027년 연말까지) → 15%(2028년 “) → 20%(2029년 “) → 35%(2030년 “) → 50%(2032년 “) → 75%(2035년 “) → 100%(2040년 “)의 도입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금호고속의 연도별 대폐차량(2025-2035년)을 분석한 결과에 판결을 대입하면 2026년 2대, 2027년 3대, 2028년 9대, 2029년 6대, 2023년 21대 등 2040년까지 총 247대의 휠체어 탑승장비가 설치된 신규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와 광주

시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반하는 차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씨 등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제기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이다.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5년간 연기됐다.

이후 2023년 3월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무려 14차례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11월 직접 광천동 유스퀘어를 찾아 현장감증까지 진행했다.

금호고속 측은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점”, “과도한 재정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근거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광주시는 금호고속 본사가 광주에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로 지목된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부담을 주장하는 금호고속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 차별법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진적 도입은 금호고속의 매출액, 영업규모 등을 보면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휠체어 승강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위해 5-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소요한다고 해 다른 승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을 제기한 배영준씨가 20일 오후 7년만에 끝난 1심 선고 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중합청사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볼수도 없다”면서 “교통약자와 더불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을 위해 누구라도 감수할 사정”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호고속 보유 시외버스 전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설치를 명하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와 시외버스 회사 사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은 다양한 교통편이 마련돼 있는 수도권과 열악한 지방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 건이 행정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한 광주시에 대한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끝까지 대리인으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통학버스 LPG차 전환 땀 300만원 지원

광주시, 32대에 9600만원 투입 접수 시작...경유차 폐차시 우대

광주시는 “2025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32대에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1인 또는 1기관 당 1대씩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21일 이후에는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폐차된 경유차량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의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이 회수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에 총 38억원을 투입해 607대를 지원했다.

나병준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로 인한 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운영자와 집안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45주년 기념행사, 전국화·세계화 ‘민주주의 대축제’로

5·18정신 가치 재확인·헌법전문수룩 등 민주주의 공고화 목표

올해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오월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기 위한 ‘민주주의 대축제’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20일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67개 참가단체와 함께 행사위 전반기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열릴 행사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정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에 5·18정신의 가치를 재확인하

는 뜻에서 행사를 꾸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행사위는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포함한 개헌(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이번 행사의 목표로 삼았다.

행사위는 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국민대회, 특별기획사업, 전국 5·18 연대협력사업, 시민공모사업, 청년기획사업, 청소년기획사업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45주년 기념행사 전야제는 예년과 달리 새벽 2시까지 오월풍물굿과 국민대회, 시민난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기획사업으로는 ‘민주대성회’와 ‘학술대회’가 열리며, ‘청년PM공모사업’도 오

는 3월 공모를 시작한다.

행사위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 등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병운 제45주년 5·18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며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올해 45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수를 맞이하게 된 오월 광주가 시민들과 전국,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대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행사위는 올해 기존 58개 단체에 신규 가입 9개 단체를 더한 총 67개 참가단체로 구성됐다. 공법단체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상임위원장 선정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참가 단체에서 빠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갓 태어난 송아지 돌보려다

어미소 공격받은 50대 숨져

갓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려던 50대 여성이 어미소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20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께 보성군 노동면 한 축사에서 50대 여성이 암소

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암소의 머리에 몸을 받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축사 주인인 A씨는 울로 소를 돌보던 중 갓 태어난 송아지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축사에 들어갔다 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함께하는 100년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